

한국어 피동구문의 제약기반이론적 접근 *

2005년 2월 2일

요 약

한국어의 피동구문은 사동구문과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능동문 혹은 기저 문장의 논항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과 다른 언어와 달리 어휘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피동구문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이동을 가정한 변형문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산학적으로 구현 가능한 수학적 엄밀성을 지닌 제약기반이론적이며 어휘적 입장에서 분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 피동

*본 논문은 김종복(2004)의 일부분을 발전시킨 것이다. 본 논문을 수정하고 더 다듬을 수 있도록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익명의 논평자 세 분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논문을 발전시키는 여러 단계에서 함께 논의해 주신 이남근, 임홍빈, 양재형, 시정근, 조세연, 정찬, 최인철, 최재웅, 채희락, 한정한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들 모든 분들의 논평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점과 본 논문의 모든 잘못은 저자의 몫임을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법은 실제로 스탠포드대학 Copestake(2002) 등이 개발한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시스템에 구현되어 그 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김종복, 양재형(2003) 참조).

구문을 문법 정보간의 제약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동이나 형상구조를 문법모형으로 삼는 도출적 이론과는 달리 유형화된 자질구조(typed feature structure)를 문법 모형의 기반으로 하고 주어진 제약(constraints)들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HPSG 문법 이론 틀안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피동문, 어휘적 피동구문, 통사적 피동구문, 제약기반이론, 유형, 자질구조, HPSG

1. 시작하기

한국어의 피동구문은 아래 예문에서 처럼 사동구문과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능동문 혹은 기저 문장의 논항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경험적 연구나 이론적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1) a. 피동: 원빈이 원중에게 잡히었다. (← 원중이 원빈을 잡았다.)
- b. 사동: 원빈이 원중에게 책을 읽게 했다. (← 원중이 책을 읽었다.)

위의 예문 (1a)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능동문에서의 피동주(patient)가 피동문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피동구문은 크게 ‘-이, -히, -기, -리’와 같은 피동접미사로부터 만들어진 어휘적 피동구문과, ‘지다’와 같은 보조동사나 ‘되다, 받다, 당하다’와 같은 경동사로 구성된 통사적 피동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¹

¹한국어 피동구문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김석득(1992), 김차균(1980), 권재일(1992), 남기심 & 고영근 (1985), 박양규(1990), 배희임(1988), 서정수(1996), Sohn(1990),

이러한 피동구문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생성문법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 왔지만, 이동(movement)을 중요한 통사적 기제로 삼는 변형 혹은 도출적 이론이 그 주를 차지하고 있다. 어휘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경우, 특히 전산학적 구현을 위한 언어학적 분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어 피동구문을 제약기반이론 중의 하나인 HPSG 이론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Sag et al. 2003, 김종복 2004 참조).

2. 어휘적 피동구문

어휘적(lexical) 피동구문은 아래 예문처럼 피동접사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가 능동형 동사에 첨가되어 만들어진 경우들로, 능동형 문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 (2) a. 영수가 원빈을 들볶았다. → 원빈이 영수에게 들볶이었다.
- b. 영수가 원빈을 잡았다. → 원빈이 영수에게 잡히었다.
- c. 영수가 원빈을 물었다. → 원빈이 영수에게 물리었다.
- d. 영수가 원빈을 쫓았다. → 원빈이 영수에게 쫓기었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능동문의 주어 ‘영수가’는 피동문에서 여격 논항으로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 ‘원빈을’은 피동문의 주어로 구현되어 있다. 이는 피동접미사가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문법적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이상억(1970), 이은규(1983), 이정택(2003), 유동준(1982), 우인혜(1997), 이익섭 & 임홍빈(1983), 최현배(1985)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지면상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 관해 상세하게 고찰하지 못함을 미리 밝혀둔다.

것을 의미한다. 즉, 능동문의 피동주(patient)가 피동문의 주어로 격상된다는 것이다.²

이들 네 가지 접미사 중 어떠한 접미사가 사용되는가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마지막 음운적 환경에 따라 구분되지만,³ 공통점은 모두 피동주를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접미사 피동이 적용되는 타동사의 예를 몇몇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a. ‘-이’ 피동 적용: 들볶다, 잠그다, 놓다, 보다, 덮다, ...
- b. ‘-히’ 피동 적용: 잡다, 엮다, 읽다, 먹다, 묻다, ...
- c. ‘-리’ 피동 적용: 물다, 자르다, 끌다, 누르다, 부르다, 듣다, ...
- d. ‘-기’ 피동 적용: 쫓다, 안다, 믿다, 빼앗다, 닫다, ...

그러나 이러한 피동접미사들은 모든 타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비록 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타동사 이지만, 이들로 부터 어휘적 피동형을 만들 수 없다.⁴

- (4) a. 수여동사: 주다, 드리다, 바치다
- b. 수혜동사: 얻다, 잃다, 찾다, 돕다
- c. 경험동사: 알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
- d. 대칭동사: 만나다, 닮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피동 표현에 대해 상응하는 피동 표현이 존재하지 않거나 주어진 피동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

²수동화 과정은 주제화나 초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기서 이러한 정보구조의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

³자세한 음운적 환경에 대한 논의는 Ahn(1989) 참조.

⁴이에 관한 논의는 권재일(1992) 참조.

- (5) a. 철수가 풀을 열심히 뽑았다.
- b. *풀이 철수에게 열심히 뽑혔다.

- (6) a. *그분이 날씨를 풀었다.
- b. 날씨가 풀리었다.

위의 경우처럼 (5a)의 피동 표현인 (5b)는 비문이 되며, 이와 반대로 (6)의 경우는 능동 표현이 비문이다. (6b)와 같은 경우는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와 같이 거의 숙어적 표현처럼 굳어버린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7) a. 요즈음 밥이 잘 안 먹힌다.
- b.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 c. 어머니의 가슴에 못이 박혔다.
- d. 그는 TV를 통해서 얼굴이 많이 팔렸다.

이들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피동구문 표현이지만 아래 예문의 상응하는 능동 표현은 아주 어색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8) a. 나는 요즈음 밥을 잘 안 먹는다.
- b.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문을 막을 지경이다.
- c. (철수가)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 d. 그는 TV를 통해서 얼굴을 많이 팔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적 피동구문은 한정된 타동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나 상응하는 능동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생산

적이다. 이는 곧 어휘적 피동구문이 생산적인 통사적 규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규칙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전산학적 구현의 측면에서 보면 간편성을 이유로 피동동사를 사전부에 모두 미리 등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동접사와 어근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피동 표현을 어휘적 표현으로 등재하게 된다면 ‘보다/보이다, 잡다/잡히다, 물다/물리다, 안다/안기다’와 같은 능동/피동 표현의 언어학적 속성을 무시하게 된다.

한정된 타동사에만 피동접사가 첨가되어 피동동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동사를 먼저 피동가능 타동사를 구분해내어 다음과 같은 어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⁵

(9) 접미사 피동규칙:

$$\left[\begin{array}{l} v-tr \\ \text{PHON } \textcircled{1} \\ \text{SYN } \textcircled{3} \text{ ARG-ST } \langle \text{NP}_i, \text{NP}_j, \dots \rangle \\ \text{SEM } \textcircled{2}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v-pass \\ \text{PHON } F_{PASS}(\textcircled{1}) \\ \text{SYN } \textcircled{3} | \text{HEAD} | \text{PASSIVE} + \\ \text{ARG-ST } \langle \text{NP}_j, (\text{NP}_i), \dots \rangle \\ \text{SEM } \textcircled{2} \end{array} \right]$$

위의 어휘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논항을 취하는 타동

⁵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엄격한 의미에서는 여기서 유형 *v-tr*은 그 하위 유형 이라야 한다. 모든 타동사에 이러한 규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현된 문법은 타동사를 피동태가 적용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v-tr-passivizable*, *v-tr-unpassivizable*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만 피동어휘 규칙을 적용한다. 편리상 여기서는 *v-tr*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규칙에서 명시된 것처럼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한국어문법은 모든 언어학적 표현들이 유형화(typed) 되어 있고, 각 유형은 어떠한 자질을 가지는지 정의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한국어문법기술은 김종복(2004) 참조.

사 유형 *v-tr* (v-transitive)이 존재하면 이 동사의 논항의 순서가 바뀐 또 다른 *v-pass* (v-passive) 유형의 동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⁶ 즉, 특정 음운적 정보 PHON, 통사정보 SYN, 논항정보 ARG-ST, 의미정보 SEM를 가지고 있는 입력부 어휘요소가 피동규칙을 적용받아 새로운 어휘요소를 생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⁷ 이들 정보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면, 음운정보 PHON 값은 함수 F_{PASS} 에 따라 ‘이, 히, 리, 기’로 각각 구현된다. 그리고 통사적 정보 SYN 값은 출력부에서 자신이 피동형 동사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핵자질 PASSIVE를 추가로 명시하게 된다.⁸ 논항구조 ARG-ST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즉 입력부의 피동주 논항(NP_j)은 출력부의 주어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논항이 되며, 입력부의 동작주(NP_i) 역할을 하는 주어는 출력부의 두 번째 논항이 된다.⁹ 입력부와 출력부의 의미정보 SEM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은(②) 두 어휘 유형 사이의 의미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어휘규칙에 따라, 타동사 ‘잡-’이 피동화 어휘인 ‘잡-히’로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⁶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약자는 다음과 같다. ARG: ARGUMENT, ARG-ST: ARG-STRUCTURE, COMPS: COMPLEMENTS, LEX: LEXICAL, RELN: RELATION, RESTR: RESTRICTION, SYN: SYNTAX, SEM: SEMANTICS, SUBJ: SUBJECT.

⁷이러한 해석은 어휘규칙을 절차적(procedural)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선언적(declarative)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어진 입력부 어휘가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출력부 어휘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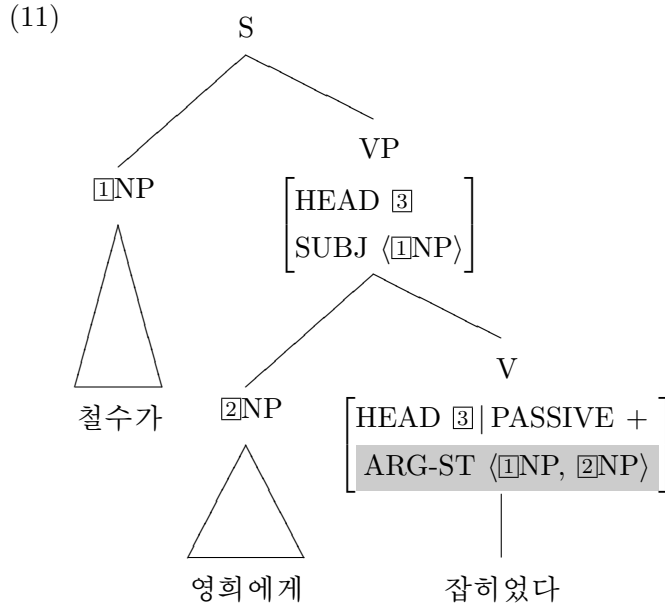
⁸자질 PASSIVE는 형태론적 자질이 아니라 순수한 구문론적 자질이며, 다음 절에서 논의할 통사적 피동구문과 상호작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⁹여기서 아래 첨자는 지시체 index 값을 의미한다.

$$(10) \left[\begin{array}{l} v-tr \\ PHON \langle \text{ㄱ잡-} \rangle \\ ARG-ST \langle NP_i, NP_j \rangle \\ SEM \text{ ㉔} \left[\begin{array}{l} INDEX \ s \\ RESTR \left\langle \left[\begin{array}{l} RELN \ catch \\ ARG1 \ i \\ ARG2 \ j \end{array} \right] \right\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v-pass \\ PHON \langle \text{ㄱ잡+히} \rangle \\ HEAD | PASSIVE + \\ ARG-ST \langle NP_j, (NP_i) \rangle \\ SEM \text{ ㉔} \end{array} \right]$$

위와 같이 능동형 동사 *v-tr* ‘잡-’의 피동주 의미역을 가진 두 번째 논항은 피동사의 첫 번째 논항으로 구현되어 주어 역할을 한다. 또한 능동형의 첫 번째 논항은 피동사 *v-pass*에서는 두 번째 여격의 논항으로 구현된다. 이와 같은 어휘규칙의 적용은 궁극적으로는 능동형 동사에 피동접사를 첨가시켜 기존의 논항구조를 변화시키고 PASSIVE 자질도 추가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피동형 어간인 ‘잡-히’가 생성되면, 이에 적절한 시제접사와 의향법접사가 첨가되어 통사부에 일어날 수 있는 ‘잡히었다’와 같은 통사부에 나타날 수 있는 *word*가 된다.¹⁰ 이러한 어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피동 어휘로부터 투영된 문장 구조를 한 예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¹⁰본 분석과 핵이동을 가정하는 변형문법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잡히-’ 혹은 ‘있-’이나 ‘다’와 같은 요소가 독립적인 통사요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격한 어휘주의를 포방하는 제약기반이론은 접사나 어근이 아니라 선어말접미사가 첨가되어 완전히 굴절된 어휘요소만이 통사구조에 나타난다. 유형 관점에서 보면 어근 *root*, 어간 *stem* 등은 순수한 형태적 요소이며 *word*만이 통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다. 김종복(2004) 참조.



위의 구조에서처럼 피동동사 ‘잡히었다’는 피동주 논항(①)과 동작주 논항(②)을 차례로 취하며, 이들은 각각 주어 SUBJ와 보충어 COMPS로 구현된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재되는 어휘정보는 논항구조 ARG-ST 값만 취하지만 문법이 정하는 논항실현재약(argument realization constraint)에 따라 논항들은 통사부에서 각각 SUBJ와 COMPS 값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위 문장에서는 먼저 피동동사 ‘잡히었다’는 동작주의 보충어 COMPS ‘영희에게’와 결합하고 그 결과는 다시 피동주인 ‘철수가’와 결합하여 정형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통사적 결합을 허용하는 규칙은 전형적인 X’ 규칙과 유사한 핵어와 보충어를 결합하는 Head-Complement 규칙과 동사구와 주어를 결합하는 Head-Subject 규칙이다.¹¹

¹¹본 논문이 가정하는 한국어 문법은 어휘부와 통사부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어휘요소들이 어떠한 형성되는지에 관한 규칙들을 포함하고 후자는 통사적 요소인 단어(word)와 구(phrase)가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규정하는 규칙 혹은 제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

3. 통사적 피동구문

3.1 ‘지다’ 보조동사 피동구문

접미사에 의해 생성된 어휘적 피동구문과 달리, 보조동사 ‘지다’에 의해 생성된 통사적(syntactic) 피동구문 생성은 훨씬 더 생산적이다. 물론 이러한 통사적 피동구문도 아래 두 예문들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능동구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12) a. 정부가 그 사실을 널리 알리었다.
b. 원빈이 종이를 찢었다.
c.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었다.

- (13) a. 그 사실이 널리 알리어 졌다.
b. 종이가 찢어 졌다.
c. 문제가 학생들에게 주어 졌다.

위의 능동문과 상응하는 피동문을 비교해보면 순수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명제를 가지지만,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만약 능동문의 주어가 여전히 구현되면 아래와 같이 비문이 된다.

- (14) a. *정부가 그 사실을 널리 알리어 졌다.
b. *원빈이 종이를 찢어 졌다.
c.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어 졌다.

한 논의는 다음 장과 김종복(2004) 참조.

이러한 비문들은 ‘지다’ 피동구문에서 일어나는 본동사는 능동형 동사와 형태적으로 동일하지만, 논항구조에 있어서는 피동주가 주어로 실현되는 일련의 피동형 동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2)의 본동사 ‘알리었다, 찢었다, 주었다’와 (13)의 본동사 ‘알리어, 찢어, 주어’는 시제, 보문자(complementizer) 정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형태소에는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보조동사 ‘지다’와 결합하는 선행하는 본동사는 능동형의 본동사가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피동형의 본동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가 없는 피동형 동사는 다음과 같은 어휘규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규칙화 할 수 있다.¹²

(15) 피동규칙:

$$\left[\begin{array}{l} v-tr \\ PHON \boxed{1} \\ HEAD | VERBAL + \\ ARG-ST \langle NP_i, NP_j, \dots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v-pass \\ PHON \boxed{1} \\ HEAD \left[\begin{array}{l} PASSIVE + \\ VERBAL + \end{array} \right] \\ ARG-ST \langle NP_j, (NP_i), \dots \rangle \end{array} \right]$$

타동사 유형 *v-tr*에 적용될 수 있는 위의 어휘규칙에 따르면, 쉽게 입력부와 출력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출력부는 음운 값 PHON에는 변화가 없지만, 핵어 자질 PASSIVE를 추가하고 논항구조 ARG-ST가 변화된다. 예를 들어 능동형 ‘알리’는 위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피동형 ‘알리’를 가지게 된다.¹³

¹²이와 같은 규칙은 타동사뿐만 아니라 서술명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입력부 동사 *v-tr*은 동사 및 서술명사가 가지는 공통된 자질인 VERBAL을 가지고 있다.

¹³이와 같이 능동형과 피동형의 형태적 혹은 음운적 변화가 없는 현상은 Mandarin Chinese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Zwicky(1987) 참조.

$$(16) \left[\begin{array}{l} v-ditr \\ PHON \langle \text{알리-} \rangle \\ HEAD | VERBAL + \\ ARG-ST \langle NP_i, NP_j, NP_k \rangle \\ SEM \text{ ㉔}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v-pass \\ PHON \langle \text{알리-} \rangle \\ HEAD \left[\begin{array}{l} VERBAL + \\ PASSIVE + \end{array} \right] \\ ARG-ST \langle NP_j, NP_k \rangle \\ SEM \text{ ㉔} \end{array} \right]$$

위의 논항구조 ARG-ST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능동형 ‘알리-’ 동사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알린다는 세 개의 논항을 취하지만, PASSIVE 자질을 가진 ‘알리’는 ‘무엇이 누구에게’ 알려진다는 두 개의 논항만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동 자질 PASSIVE을 가진 능동형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피동형 동사가 형성된 후 ‘-어’와 같은 보문자가 첨가되어 ‘알리어’가 되고, 통사부에 사용될 수 있는 *word*가 된다.

그렇다면 피동 보조용언 ‘지다’는 통사부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 많은 문헌들은 ‘지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거나 단순히 형태부에서 선행하는 동사에 첨가되어 복합동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Lee 1993 참조). 그러나 여러 가지 문법적 현상들은 선행하는 ‘본동사-어’와 ‘지다’는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어휘적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음 예에서처럼 한정사(delimiter)인 ‘-은/-만/-도’ 등이 본동사에 첨가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조용언들이 뒤따를 수 있다.

(17) a. 알려는 졌다, 알려도 졌다. 알려만 졌다,...

b. 알려 지지 않다, 알려 저 버렸다, 알려 지게 되었다,...

또한 통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다’ 피동구문은 여타 보조동사구문과도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먼저 보조동사구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 (18) a.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어 싶다.
 b.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널리 싶다.
 c.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기]는 [알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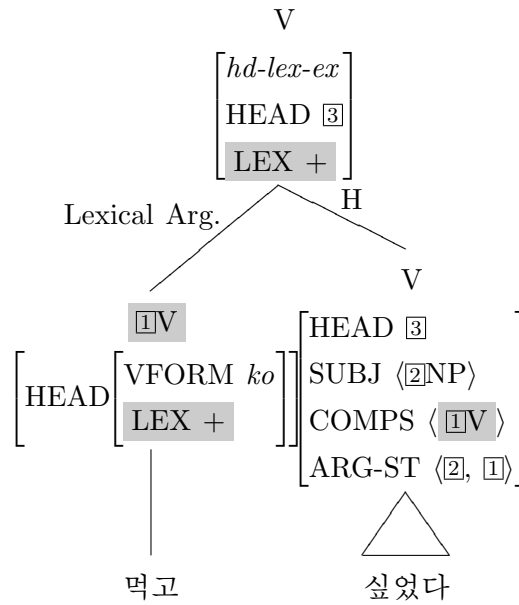
위의 (18a)에서처럼 보조용언을 선행하는 (본)동사는 특정형태의 보문자를 가져야하며, (18b) 같이 두 요소 사이에 ‘널리’와 같은 부사적 요소가 끼어들 수가 없다. 또한 (18c)에 주어진 것과 같이 선행하는 본동사와 함께 하나의 단위처럼 행동하여 반복구문(echo construction)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다’ 피동구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 (19) a. 그 사실이 널리 알리어/*고 졌다.
 b. *그 사실이 널리 알리어는 널리 졌다.
 c. 그 사실이 널리 [알리어 지기]는 [알리어 졌다].

위 예문에서처럼 ‘지다’를 선행하는 본동사는 ‘-아/어’ 형태이어야만 하며, 두 요소 사이에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 수 없고, 또한 두 요소는 하나의 통사적 단위처럼 반복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다’ 피동구문을 보조동사구문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김종복, 양재형(2004)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조동사구문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석은 보조동사가 본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술어를 이룬다고 보는 분석이라 본다. 예를 들어 아래 구조와 같이 보조동사 ‘싶었다’가 어휘적 논항인 ‘먹고’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술어가 된다는 것이다.

(20)



위의 구조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조동사 ‘싶었다’가 자신의 보충어인 본동사 ‘먹고’와 결합하여 여전히 [LEX +] 자질을 가진 통사적 표현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영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¹⁴ 한국어에서 이와 같이 두 어휘적 요소가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은 핵어-어휘 규칙 Head-Lex(ical) Rule이다.

(21) Head-Lex Rule:

$$\left[\begin{array}{l} hd-lex-ex \\ COMPS L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LEX + \\ COMPS L \end{array} \right], H \left[\begin{array}{l} AUX + \\ COMPS \langle [1] \rangle \end{array} \right]$$

¹⁴인구어 중 불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beillé & Godard(1998) 참조.

위 규칙은 기본적으로 핵어(head)가 어휘적인([LEX +]) 요소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 이 두 요소가 결합하게 되면 정형의 통사적 구성소 *hd-lex-ex* (*head-lexical-expression*)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Head-Comp Rule과는 달리 어휘적인 보충어와 결합하여 또 다른 어휘적([LEX +]) 자질을 가진 통사 표현을 생성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적 결합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통사적 작용은 소위 말하는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 효과이다.¹⁵ 또한 위의 규칙을 살펴보면 선행하는 요소의 보충어 COMPS 값과 결과 표현인 *hd-lex-ex*의 COMPS 값이 모두 동일하게 L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보조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하였을 때 본동사의 논항이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지다’ 피동구문이 복합술어구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피동보조동사가 적절한 어휘적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동조동사 ‘지다’의 어휘적 속성에 출발한다.

¹⁵ 논항합성의 필요성을 Sells(1995), Bratt(1996), Chung(1998), Kim(2000) 등이 제시하고 있지만, 논항합성을 어휘적 과정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분석들과는 달리 본 분석은 문법규칙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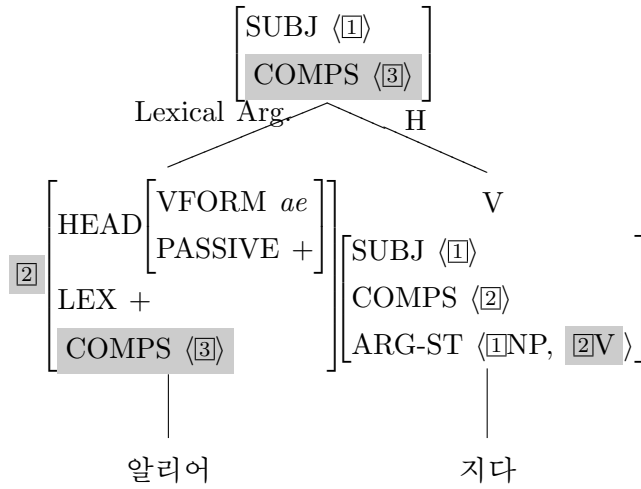
$$(22) \left[\begin{array}{l} aux-pass \\ PHON \langle \text{지다} \rangle \\ SYN \left[\begin{array}{l} HEAD \left[\begin{array}{l} POS \textit{verb} \\ AUX + \end{array} \right] \\ ARG-ST \langle NP, \left[\begin{array}{l} VFORM \textit{ae} \\ PASSIVE + \\ SUBJ \langle \text{I} \rangle \\ INDEX \textit{s1} \end{array} \right] \rangle \\ SEM \left[\begin{array}{l} INDEX \textit{s} \\ RESTR \left\langle \left[\begin{array}{l} RELN \textit{happen} \\ ARG0 \textit{s} \\ ARG1 \textit{s1} \end{array} \right] \right\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 어휘 정보에 따르면 보조동사 ‘지다’는 주어로 실현되는 논항과 어휘적 요소를 논항으로 취한다. 이 어휘적 논항은 VFORM에 관한 제약뿐만 아니라 PASSIVE 자질도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조동사 ‘지다’가 수동 PASSIVE 자질을 가진 동사와만 결합하도록 하여 (??)와 같은 비문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위의 어휘 정보를 보면 ‘지다’는 의미적으로는 본동사가 지시하는 상황 s1이 일어났다(happen)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이와 같은 어휘적 정보를 가지는 ‘지다’가 선행하는 본동사와 결합하여 복합술어를 이루는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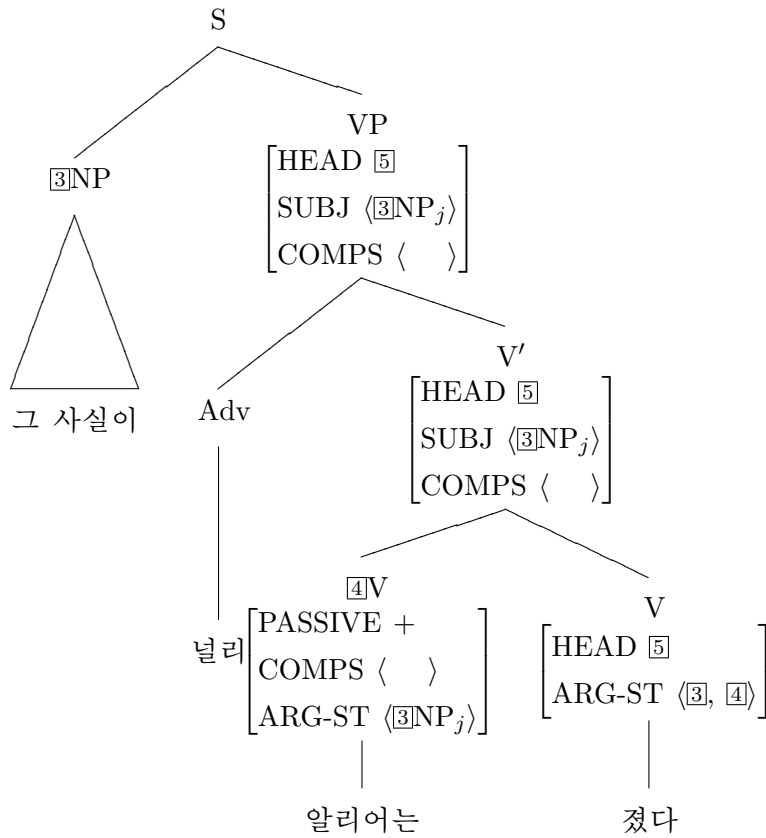
¹⁶여기서 RESTR은 RESTRICTION을, RELN은 RELATION, 그리고 ARG0, ARG1은 각각 논항 ARGUMENT를 의미한다. 이들은 각각 이러한 술어가 갖는 의미적 제약, 의미적 관계, 그리고 의미역 논항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의 자질을 이용한 의미표현 방법은 Sag et al. (2003)과 김종복(2004) 참조.

(23)



위 구조에서 제시된 것처럼 피동보조동사 ‘지다’가 Head-Lex Rule에 따라 PASSIVE 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여 복합술어인 *hd-lex-ex*를 이룬다. 이러한 복합술어는 보조동사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논항합성의 결과로 보조동사는 본동사 ‘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보충어 COMPS 값을 상속받는다. 아래 (24)는 이러한 기본적 구조에서 투영된 피동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4)



보조동사 '지다'가 PASSIVE 자질을 가진 '알리어'와 먼저 결합하여 복합술어를 형성한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이때 동사 '알리어'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진 타동사가 아니라 피동주 하나만 논항으로 취하는 PASSIVE 자질을 가진 동사이다. 이 복합술어를 부사 '널리'가 수식하여 핵어-수식어-구인 *hd-mod-ph*를 형성하고, 그 결과는 다시 주어와 결합하여 핵어-주어-구인 *hd-subj-ph*를 이루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복합술어분석은 본동사와 '지다' 보조동사가 엄격한 어순을 지키며, 두 요소가 통사적으로 한 단위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본동사의 논항구조, 특히 보충어에 관한 정보가 ‘지다’ 보조동사로 상속된다는 것도 포착한다. 아래와 같이 비록 보조동사가 문장 전체의 핵어 역할을 하지만, 문장 전체의 논항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 것은 보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라는 것이다.

- (25) a. 그 사실이 널리 알려 졌다.
- b. 그 책들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졌다.
- c. 무거운 책임감이 어린이들에게 주어 졌다.

위 문장의 논항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본동사 ‘알려’와 ‘나누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본동사와 ‘지다’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이룬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복합술어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로 행동한다는 사실도 쉽게 기술 할 수 있다.

- (26) a. 그 사실이 널리 [[알려 지기는] [알려 졌다]].
- b. 그 책들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지기는] [나누어 졌다]].

보조용언 ‘지다’에 의해서 형성된 피동문구조에서 본동사는 타동사와 형태적 변화 없이 PASSIVE 자질을 가진 피동형 동사이다. 이는 접미사 피동화를 거친 동사도 PASSIVE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지다’가 피동접미사를 수반한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27) a. 슬픈 사건은 잘 안 잊혀 진다.
- b. 이 소설은 최근에 쓰여 진다.

- c. 종이가 찢기어 졌다.
- d. 줄이 끊기어 졌다.

심지어 자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밟혀 지다, 먹혀지다’와 같은 경우도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28) a. 바람 따라 어느 길목에 나뭇굴며 발끝에 채이고 밟혀 진다.
- b. 닭과 염소요리는 특별한 경우에 먹혀진다.

한 예로 (27d)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여기서 동사 ‘끊기어’는 아래와 같이 타동사 ‘끊-’에 (??)의 접미사 피동규칙이 적용되어 생성된다.

$$(29) \left[\begin{array}{l} v-tr \\ PHON \langle \text{ㄱ} \text{끊-} \rangle \\ ARG-ST \langle NP_i, NP_j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v-pass \\ PHON \langle \text{ㄱ} \text{끊+기} \rangle \\ HEAD | PASSIVE + \\ ARG-ST \langle NP_j, NP[dat]_i \rangle \end{array} \right]$$

위와 같이 피동어휘 규칙 (??)에 의해서 생성된 ‘끊기’는 수동자질 PASSIVE를 가지게 되어, ‘지다’와 결합하여 (28b)와 같은 피동형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⁷

¹⁷본 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경우도 있다.

- (30) a. 물이 맑아 진다.
- b. 손이 차가워 진다.
- c. 자동차가 지나가 졌다.

비록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용언이 지시하는 사건이 시작하게 되는 의미 즉,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중 수동형이나 자동사인 경우는 피동구문과 구분하여 기동(inchoative)의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구문으로 취급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Lee(1993) 참조. 만약 이러한 자동사의 경우와 수동의 경우가 의미의 차이가 없다

3.2 경동사류 피동구문

앞절에서 살펴 본 보조동사 ‘지다’에 의해서 생성된 이와 같은 통사적 피동구문과 달리, 아래와 같이 서술명사(verbale noun)와 경동사인 ‘당하다, 받다’ 혹은 ‘되다’가 결합하여 피동구문을 만들 수도 있다.

- (31) a. 철수가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 b. 철수가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 c. 철수가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다.

위의 예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응하는 능동형의 경동사구문을 가지고 있다.

- (32) a. 친구들이 철수를 모욕(을) 하였다.
- b. 친구들이 철수를 존경(을) 하였다.
- c. 경찰이 철수를 체포(를)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피동구문에서 경동사는 ‘지다’ 피동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동형 경동사의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 (33) a. *친구들이 철수를 모욕(을) 당하였다.
- b. *친구들이 철수를 존경(을) 받았다.
- c. *경찰이 철수를 체포(를) 되었다.

면 능격(unaccusativity)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 둘 모두를 통합하는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동사를 능격 동사 즉 피동주를 주어로 취하는 동사로 변화시키는 어휘규칙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당하다, 받다, 되다’와 같은 경동사도 ‘지다’ 보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수동 PASSIVE 자질을 가진 서술명사를 보충어로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면 ‘당하다’와 같은 경동사는 다음과 같은 어휘 정보를 가진다.

$$(34) \left[\begin{array}{l} aux-pass \\ PHON \langle \text{당하다} \rangle \\ SYN \left[\begin{array}{l} HEAD \left[\begin{array}{l} POS \textit{verb} \\ AUX +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ARG-ST \left\langle \begin{array}{l} \text{INP}, VN \left[\begin{array}{l} VFORM \textit{ae} \\ PASSIVE + \\ SUBJ \langle \text{I} \rangle \\ INDEX \textit{s1}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rangle \\ SEM \left[\begin{array}{l} INDEX \textit{s} \\ RESTR \left\langle \begin{array}{l} RELN \textit{receive} \\ ARG0 \textit{s} \\ ARG1 \textit{s1} \end{array} \right\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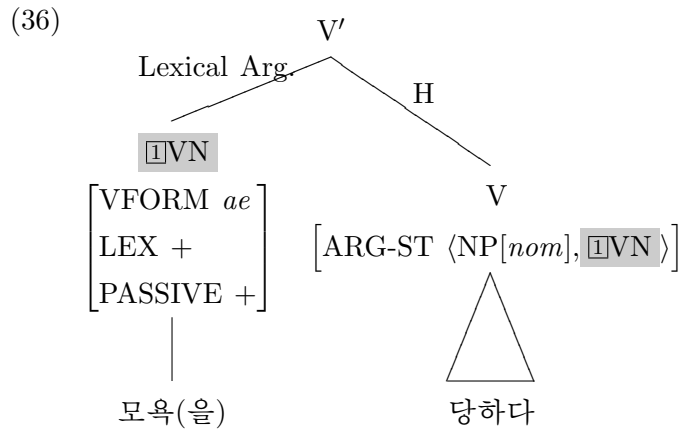
위의 어휘 정보가 말해주듯이 ‘당하다’는 피동규칙 (??)가 적용되어 PASSIVE 자질을 가지게 되는 피동형 경동사와 결합한다. 예를 들어 능동형 서술명사 ‘모욕’은 이 피동 규칙을 적용받아 다음과 같이 PASSIVE 자질을 가진 피동형 서술명사가 된다.¹⁸

¹⁸이러한 분석은 익명의 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누군가를 모욕하다’의 능동구문과 ‘누군가에게 모욕 당하다’의 피동구문에서 사용된 ‘모욕’을 궁극적으로 동일한 형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통사적 PASSIVE 자질 및 논항구조에서는 다른 정보를 가진 각각의 어휘로 보는 것과 같다.

$$(35) \left[\begin{array}{l} \text{PHON } \langle \text{모욕} \rangle \\ \text{HEAD} \mid \text{VERBAL } + \\ \text{ARG-ST } \langle \text{NP}_i, \text{NP}_j \rangle \\ \text{SEM } \boxed{2} \mid \text{RESTR } \left\langle \begin{array}{l} \text{RELN } \textit{insult} \\ \text{INSULTER } i \\ \text{INSULTEE } j \end{array} \right\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PHON } \langle \text{모욕} \rangle \\ \text{HEAD} \left[\begin{array}{l} \text{VERBAL } + \\ \text{PASSIVE } + \end{array} \right] \\ \text{ARG-ST } \langle \text{NP}_j, (\text{NP}_i) \rangle \\ \text{SEM } \boxed{2}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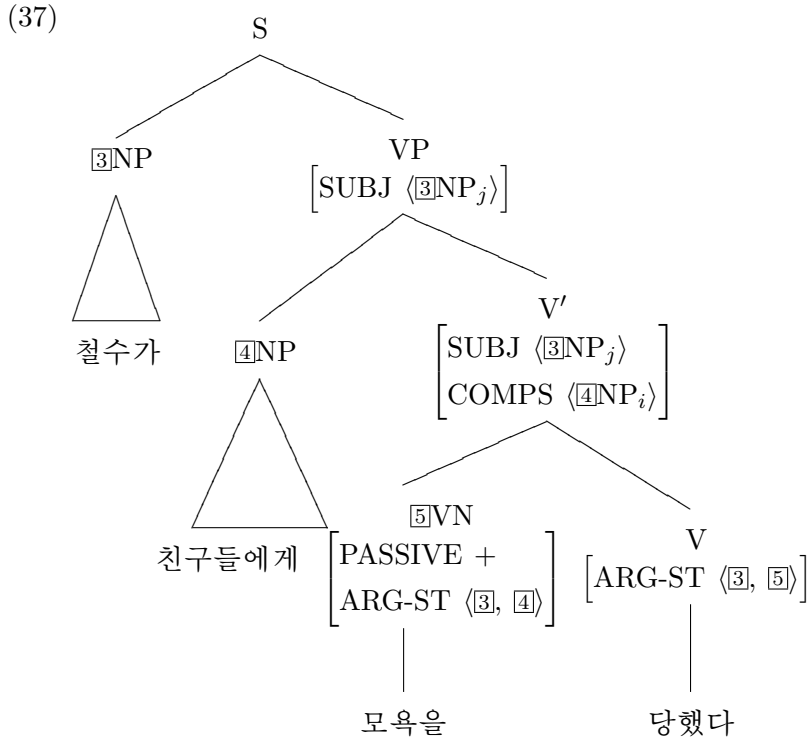
즉 능동형 서술명사 ‘모욕’은 ‘누가 누구를’ 모욕한다는 의미의 두 논항을 차례로 취하지만, 피동형 서술명사 ‘모욕’은 ‘누군가 (누구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의미의 논항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동 PASSIVE 자질을 가진 서술명사는 (??)의 피동규칙으로 인해 피동주가 주어로 구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피동 서술명사와 결합하는 것은 피동 경동사 ‘당하다, 받다’ 등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피동 경동사들은 피동 서술명사와 결합하여 아래처럼 *hd-lex-ex*를 형성한다.¹⁹



¹⁹여기서 사용하는 VN, VNP는 편의상 서술명사와 이로부터 투영된 구 표현을 의미한다.

능동 서술명사와는 달리 피동 서술명사는 피동주가 첫 번째 논항이며 주어로 실현되고, 경동사 ‘당하다’가 결합하여 복합술어를 이룬다. 이러한 복합술어로부터 이루어진 피동문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피동 경동사 ‘당했다’와 피동 서술명사 ‘모욕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술어는 Head-Lex Rule에 따라 ‘모욕’이 가지고 있는 COMPS 값을 상속받는다. 이 복합술어는 다시 보충어인 ‘친구들에게’와 결합하여 주어를 요구하는 VP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다시 주어인 피동주 ‘철수가’와 결합하여 완전한 문장이 된다. 물론 이 주어가 피동주의 의미가 없다면 의미적 충돌이 생기게 된다.²⁰

²⁰물론 익명의 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당하다, 받다, 되다’는 각기 다른 공기 제약 및

4. 결론

한국어에서 논항구조를 변화시키는 피동구문은 크게 어휘적(형태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어휘적 방법만 사용하는 영어나 통사적 방법만 사용하는 만주어와는 차이가 있다. 어휘적 방법은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를 이용해서 어근의 논항구조를 변화시키는 반면, 통사적 방법은 보조동사와 경동사를 이용한다. 어휘적 피동은 모두 예외 현상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통사적 피동은 예외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제시된 논항구조를 변화시키는 이 두 구문에 대한 분석은 어휘규칙과 피동 동사의 어휘적 정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통사적 피동구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형태적 변화가 없는 어휘규칙이 자질 PASSIVE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석과 많은 차이가 있다. 형태적 정보, 어휘규칙, 통사부 정보, 의미 정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들의 상호작용이 두 구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학적으로 엄밀한 자질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와 같은 문법은 전산학적으로 응용하기에 편리하다. 특히 이와 같은 자질을 이용한 문법구현을 목표로하는 Copestake(2002) 등이 개발한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System에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한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분석 연구와 달리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어 구문분석의 발전을 위해서 본서에서 제시한 명시적(explicit) 문법 연구와 의미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세 피동경동사의 공통된 통사적 사실만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는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
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영근, 남기십. 1985.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 김중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Korean Phrase Structure Grammar)」,
한국문화사.
- 김중복, 양재형. 2004. 조동사 복합술어 구문 분석 및 전산학적 구현 「어
학연구」 제 40권 1호 195-226.
- 김중복, 양재형. 2003. 제약기반이론에서의 한국어구구조문법과 LKB 시
스템을 이용한 구문분석기 구축. 「한국어학」 20: 1-40.
- 김차균. 1980. 국어의 수동과 사역의 의미, 「한글」 168, 한글학회.
-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박이정.
- 박양규. 1990. 피동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배희임. 1988. 「국어피동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상억. 1970. 국어의 사동, 피동구문 연구. 「국어연구」 26, 8-86.
-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은규. 1983. 국어피동법 연구, 「문학과 언어연구」 13.

- 이정택. 2003. 접미사 피동문의 능동주 표지에 관한 연구. 「한글」 258, 137-256.
- 임홍빈. 1987. 국어 피동화의 의미, 「진단학보」 45, 진단학회.
- 우인혜. 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최현배. 1937, 1955, 1982. 「우리말본」, 정음사.
- Abeillé, Anne and Danièle Godard. 1998. French Word Order and a Lexical Weight. In Borsley (ed), *Syntactic Categories*. New York: Academic Press.
- Ahn, Sang-Cheol. 1989. On the derivation of causative/passive suffixes in Korean. 「이혜숙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139-189. 한신문화사
- Bratt, Elizabeth.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Chung, Chan. 1998. Argument Composition and Long Distance Scrambling in Korean: An Extension of the Complex Predicate Analysis. In Hinriches et al. (eds.), *Complex Predicates in Nonderivational Syntax*, 159-220. New York: Academic Press.
- Copestake, Ann. 2002. *Implementing Typed Feature Structure Grammars*. CSLI Publications.
- Kim, Jong-Bok. 2000. *The Grammar of Negation: A Constraint-Based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 Lee, Keedong.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

ples. Seoul: Hankook Munhwasa.

Sag, Ivan, Tom Wasow, and Emily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Sells, Peter. 199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lexical perspective. *Linguistics Inquiry* 26, 277-325.

Sohn, Ho-Min. 1990. *Korean*. London: Routledge.

Zwicky, A.M. 1993. Heads, bases and functors. In Greville Corbett and N. Fraser and S. McGlashan (eds.), *Heads in Grammatical Theory*.

요 약

ABSTRACT

Korean Passive Constructions: A Nonderivational, Constraint-Based
Perspective

Korean employs both lexical and syntactic mechanisms to express passive constructions. This language peculiar property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both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s. Though there have been extensive research on the constructions, few have been provided that introduce less ad hoc mechanisms and are mathematically precise enough to be implemented for computational purposes. This paper recasts the passive constru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a constraint-based grammar in which typed feature structures and grammatical interfaces play crucial roles. In particular, it lays out an 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analysis of the Korean passive constructions with the aim of computational implementation.

Jong-Bok Kim

School of English

Kyung Hee University, Seoul

jongbok@khu.ac.kr